

## 오페라 라보엠의 여주인공 무대 의상 연구

최유진 · 김희은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f the Heroine's Stage Costume in the La Bohème

Yoo-Jin Choi and Hee-Eun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heroines' fashion styles in the opera, "La Bohème." This article studied the representations of the grisettes in 1830's Fr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isettes appeared in the original novel, "Scènes de la Vie de Bohème" and contemporary literatures and paintings. The one of the heroines, Mimi was figured a virtuous female despite poor environments, by contrast Musetta was described as cruel, greedy and vicious female in the opera. But, by analyzing the original novel and the representations of the grisettes in contemporary literatures, this study figured out clearly Mimi and Musetta have same origin and similar aspects, not contrast. Up to the present mimi's costumes were not sophisticated but too simple compared to Musetta's. Also Musetta's costume were too much luxury considering her status. This study proposed a new fashion style considering not only analysis result of the heroines' characteristics but contemporary costume design of the 1830's France.

**Key words:** 오페라 Opera 무대 의상 Stage Costume 라보엠 La Bohème 그리제트 Grisette

### 1. 서 론

본 연구는 오페라 라보엠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패션 표현과 상징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현재까지 라보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음악학 연구 분야에 치중되었으며 최유진, 김희은(2010)의 연구가 오페라 라보엠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들의 의상을 유일하게 고찰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정운경(2005)의 연구가 라보엠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분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오페라에 등장한 여주인공의 성격과 의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페라에는 미미와 무제타라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상당히 비중있는 인물이며 고찰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남성 주인공과 함께 논의하기 보다는 별도로 이들 여주인공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시켜 연구하고자 했다.

미미와 무제타라는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학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리제트라는 상징적인 여성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상은 라보엠의 등장 인물인 미미와 무제타를 이해하는 중요한 속성이 된다. 라보엠의 배경이 되었던 1830년대의 파리는 복식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시기로 복식 산

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이들은 주로 문학 작품의 히로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러한 문학작품에서 복식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그들의 작업복 색이 회색이었던 것에서부터 유래된 말인 그리제트(grisette)라고 불렸다. 40년대 이후 그리제트는 보엠(bohème)이 사라지는 시기를 같이 해 사라지지만 프랑스의 문학에서 그 흔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제트라는 여성상에 주목한 성과로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Thompson(2000)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19세기 프랑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를 초기의 매춘 형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제트는 노골적으로 매춘부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낭만주의 창부상이라 볼 수 있다. 미술학 분야에서는 Stamm(1981)이 폴 가바르니(1804-66)가 남긴 풍자화 속의 그리제트와 로레트의 표상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낭만주의적인 창부상의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이들 두 종류의 인간상을 비교하고 있다.

라보엠의 여주인공들의 의상 표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러한 여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여주인공의 패션 스타일을 당시의 회화 자료를 수집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들 여주인공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리제트라는 여성들에 대한 표상을 먼저 고찰하여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의상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

Corresponding author; Hee-Eun Kim  
Tel. +82-53-950-6220, Fax. +82-53-950-6219  
E-mail: Hekim@knu.ac.kr

을 것으로 본다. 이 후, 오페라 대본과 원작 소설 『보엠의 생활정경(Scènes de la Vie de Bohème)』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공연된 자료를 통해 올바르게 연출되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자 했다.

분석 자료로는 Teatro alla Scala에서 공연된 Puccini(1967)(공연자료 1), 메트로폴리탄에 의해 공연된 Puccini(1982)(공연자료 2),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 의한 공연된 Puccini(1989)(공연자료 3), Teatro degli Arcimbaldi에서 공연된 Puccini(2003)(공연자료 4),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 의한 Puccini(2008)(공연자료 5)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라보엠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성격과 의상에 관해 연구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학이나 미술학 분야의 성과를 기반으로 원작과 대본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라보엠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의상표현을 분석하고자 했다.

## 2. 1830년대의 그리제트

### 2.1. 그리제트의 의미

1830, 40년대 프랑스에는 복식 산업에 종사한 여성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파리 경제에 있어서 의류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이었음을 1847년부터 1848년에 걸쳐 조사한 「파리 산업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의류 산업의 규모가 1위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식품, 건축, 가구, 귀금속 등의 순이었다. 이 통계는 325개 업종의 판매 규모나 고용인의 수를 표기했는데 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피고용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복식부문의 노동자는 약 9만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Chambre de Commerce à Paris, 1851). 이러한 복식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당시의 문학 작품에서 그리제트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라보엠의 여주인공들은 복식산업에 종사한 여성들을 총칭하는 그리제트라는 용어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그리제트라는 단어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694년에 간행된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초판에 게재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하층민의 자녀나 젊은 여성을 경멸하는 감정을 포함하여 부르는 단어」로 정의되었으며(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1694) 이 후, 1830년대에는 복식 산업에 종사하는 여공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1832-35). 그러나, 1866년부터 1879년에 걸쳐 간행된 『19세기 라루스 백과사전』에서 「세련된 젊은 사람, 멋스러운 여공, 또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소녀」로 그 정의가 변화되어 있다(Larousse, 1982). 이 시기의 그리제트라는 용어가 반드시 노동을 하는 층의 여성에 한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같은 사전의 창부(Courtesan)라는 항목에는 그리제트가 코르티잔의 초기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 2.2. 예술 작품 속에서의 그리제트

그리제트는 실제로 복식 산업에 종사한 여성 직인들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으로 가공되어지는 여성상이다. 낭만주의 문학가들은 그리제트가 사회의 하층민으로 주목받지 못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관이나 생활관을 이상하다고 할 만큼 칭송하고 있다.

파리인들의 생활을 관찰하여 써낸 생리학적인 서적으로 『파리인의 자화상』이라는 출판물이 있다. 이 서적에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파리인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글이 실려있다. 그 중에서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제트이다. 그리제트는 1830년대의 대표적인 직업의 하나인 썸이다. 그리제트라는 항목을 담당한 평론가 Jules Janin은 「그리제트는 근면하고 날씬하며 활기차고 신분이 낮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보다도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비늘 끝에 의한 무고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복은 검에 의한 정복보다 천배나 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Janin, 1840-1842)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의 섬유 산업이 유럽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인 만큼 수작업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패션 종사자들을 칭찬하는 묘사들로 넘쳐난다.

또한 『미미 뽕송』이라는 작품에서 소설가인 알프레드 드 뫼세도 그리제트를 상찬하는 글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미미 뽕송』이라는 작품은 그리제트의 생리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을 만큼 그리제트 연구를 전면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뫼세 또한 이 작품에서 Janin과 마찬가지로 그리제트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에는 그리제트가 마치 어떤 미덕을 가진 여성으로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소설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다. 방탕아인 주인공 마르셀은 이성에게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의과대학 학생인 친구에게 그리제트를 연인으로 삼을 것을 권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선 첫 번째, 그녀들은 지조가 있다. 이라는 것은 정절과 진중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의상을 아침부터 밤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녀들은 예의바르다. 속옷가게 점원이라도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에게 손님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도록 교육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녀들은 어떤 것이라도 조심스럽게 취급하며, 매우 청결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끊임없이 속옷이나 옷감을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럽힌다면, 감봉당할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Musset, 1899)

이들 그리제트는 예술가나 학생의 연인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칭송받고 있다. Paul de Kock는 「그녀들과 함께라면, 가난하고 젊으며 밝은 청년들이 부자이지만 같이 있기 거북한 신사보다 우선시 될 것이다, 나는 언젠까지라도 그리제트를 부르주아 여성들 보다 위에 두고 싶다」(De Kock, 1834)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제트는 1830년대의 상당 수의 문학가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그녀들은 다른 노동자보다 멋스럽고 아름답다고 묘사된다.

또한 빈곤한 생활에 굴복하지 않으며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돈에 집착하지 않으며 결혼에도 연연하지 않는 자유 연애를 즐기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녀들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보엠과의 연애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보엠의 생활관을 나타내는 데 있어 중요한 상징적 요소가 된다.

그리제트는 보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작품에서 보엠의 연인으로 등장하여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젊은 시절과 보엠들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인 이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 즉, 그리제트는 여성 보엠인 셈이다. 자유 분방한 연애관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에 집착하지 않는 그녀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은 부르주아 규범에서 벗어 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남성 보엠들의 부르주아에 대한 비판적인 이념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리제트의 변모되어 가는 양상을, 작품에서는 부르주아화하는 보엠 자신들의 모습에 견주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제트가 쉽게 이성애 몸을 맡기거나 그로 인해 얻게 된 돈으로 몸치장을 바꾸는 것, 혹은 자유 분방한 연애를 청산하고 결혼하는 것을 부르주아화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제트의 변모는 그들의 변화하는 패션에 나타나는데 주로 보닛과 숄 등 당시의 패션 아이템이 화려해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리제트가 부르주아화하는 모습을 문학가들은 로레트라는 명칭의 여성으로 대변되는 창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제트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학생이나 보헤미안들을 애인으로 두었던 여성이라면 로레트는 좀 더 노골적으로 사랑을 파는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레트라는 용어는 노트르담 드 로레트(Notre-Dame de Lorette)라는 지명에서 유래하며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지구에서 비교적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정부를 둔 여성을 지칭한다. 로레트는 그리제트보다 좀 더 탐욕스러운 여성으로 묘사된다. 오페라 라보엠에 등장하는 미미와 무제타는 모두 그리제트이면서 동시에 로레트인 여성이다. 특히 무제타의 모습에서 로레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금전적인 유희에 전혀 저항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화 작품에서 묘사된 그리제트의 모습도 문학작품 속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제트는 귀여운 모습이나 연인에게 순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앙리 모니에(1805-1877)는 1827년에서 28년에 걸쳐 석판화집 「그리제트들」을 3번 출판하

여 그리제트를 널리 알리게 된다. Fig. 1은 두 번째 간행된 42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시리즈 중의 두 작품이다. 왼쪽 작품에는 「그냥 두세요 당신 싫어요 (Laissez-moi, je vous déteste)」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있으며 오른쪽 작품에는 「그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해...악당!! (Il veut m'épouser, le scélérat!!)」이라는 글귀가 첨부되어 있다. 모니에는 소녀와 같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리제트의 모습을 특히 강조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리제트와 로레트에 관한 본격적인 탐구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화가는 폴 가바르니이다. Fig. 2는 『파리의 자화상』(1840-42년)이라는 서적의 그리제트 항목의 삽화이다. 이 그림에는 바느질 용구함으로 보이는 상자를 다소곳하게 들고 걸어가 는 모습의 그리제트가 표현되어 있다. Fig. 3은 같은 서적의 파리의 법학생이라는 파트의 삽화인데 이 에세이는 법학생과 그리제트의 연애사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에 본 삽화가 그려져 있다. 앞 서 Janin의 글을 소개한 바와 같이 그리제트는 가난한 예술가나 학생과 사랑을 하는 인정 많고 자유분방한 여성이지만 법학생에게 있어서는 잠깐 일시적으로 사귀는 연애 상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amm(1981)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제트를 낭만주의의 창부상이라고 단정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욕구로 남성을 사귀는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낭만주의 이전이나 이후의 문학이나 판화 에서는 그리제트를 노골적으로 창부와 같은 여성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낭만주의 예술에서 그리제트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1830, 40년대에 예술 작품 속에 등장한 그리제트들은 문학 속에 등장하는 보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존립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낭만주의 문학이 쇠퇴하면서 그리제트는 문학 속에서 사라진다. 그리제트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했던 복식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상이지만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특히 보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공되어진 인물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미미와 무제타라는 여성상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다.

### 2.3. 1830년대의 여성 복식

1830년대는 종전의 엠파이어 스타일에서 허리를 코르셋으로 조이며 스커트가 부풀려 지고 어깨도 강조되는 소위 X자형 실루엣으로 대변되는 스타일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어깨를 보다



Fig. 1 그리제트들(Monnier, H. (1827-28), p. 4, p. 6)



Fig. 2. 그리제트(Janin, J. (1840-1842), pp. 8-9)



Fig. 3. 그리제트(De Laredollierre, E. (1840-1842), p. 24)



Fig. 4. 1824년의 프랑스 의상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1824), pp. 670-671.



Fig. 5. 1836년의 프랑스 의상 (Bon ton (1836), p. 81.

강조하기 위해 드롭 솔더에 퍼프 슬리브나 레그오브머튼 슬리브를 달아 커다랗게 강조하거나 소매 안쪽에 뾰족한 안감을 넣은 후 다른 한 장의 소매를 덧달기도 했다. 부풀려진 스커트는 부드러운 주름이 장식되었으며 고급스런 소재, 화려한 색상과 함께 프릴, 레이스, 리본, 플라운스 등이 장식되어 귀족적이며 낭만적인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1830년대 초기의 복식의 특징들은 부풀린 칼라, 넓은 칼라, 넓은 모자 그리고 퍼지는 스커트 등 대부분 1820년대 말에 등장한 것들이다. Fig. 4는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라는 잡지의 1824년 6월호 게재된 패션 플레이트이다. 이 의상은 이전의 고전주의 의상과는 달리 어깨와 스커트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특징은 1830년대에 들어서 절정에 달했다. 블랑쉬 페인(1994/1965)에 의하면 1830년대 여성 복식의 특징은 대개 어깨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사선이 있었으며 이러한 V자형은 어깨 폭을 강조하면서 허리를 최소로 보이도록 도왔다고 한다. 또한 스커트들은 풍성하였지만 1820년대의 무거웠던 장식들은 사라졌으며 길이가 짧아졌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836년 Bon ton이라는 잡지에 실린 삽화(<Fig. 5>)에서 보면 그 특성이 확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Fig. 4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다.

### 3. 라보엠의 여주인공의 성격 분석

라보엠의 원작소설인 뤼르제의 『라보엠의 생활 정경』이라는 소설에는 미미, 뤼제트, 페미라는 여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그리제트들이다. 이 주인공들은 각각 주요 등장 인물인 보엠들의 애인이다. 미미는 로돌포, 마르셀은 뤼제트, 폴린느는 페미와 각각 연인 관계에 있다. 오페라의 대본에는 미미와 로돌포, 마르셀과 뤼제트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페미를 생략한 미미와 뤼제트가 대본과 원작에서 어떠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오페라의 자세한 스토리는 최유진, 김희은(2010)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구성을 Table 1.에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 3.1. 미미(Mimi)

미미는 뤼실(Lucile)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오페라의 가사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은 나를 Mimi라고 부르지만 내 이름은 Lucia”(신영주, 2008)라고 푸치니의 여주인공은 1막에서 노래하고 있다. 원작에서 미미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다. 가난한 예술가들인 보엠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이해심 많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애인을 떠나는 매정한 여성이기도 한다. 그러나 푸치니의 오페라에서는 미미의 다양한 성격을 간소화시켜 가련하고 불쌍한 여성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대본과 원작에서 미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오페라의 원작에는 미미에 관해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미미는 아름다운 처녀인데, 로돌포의 창작과 시에 대한 이상에 잘 공명하고 있었다. 나이는 22세로 작은 몸집이고 상냥하며 이름답다. 또한, 그녀의 얼굴은 귀족적인 타입이며, 자태는 놀랄만큼 바르고 곱다. 그녀의 혈관을 달리는 청춘의 뜨거운 피의 흐름은 그녀의 투명한 피부를 장미빛으로 물들여 동백꽃과 같이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그와 같이 품위있는 아름다움이 로돌포를 매혹시켰는데, 그 중 더 한층 그를 열중하게 만든 것은 미미의 작은 손이었다. 그녀는 항상 집안에

Table 1. 오페라 막의 구성과 배경

막	등장	시간	장소	주요 스토리
1막	미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라틴구의 하숙집	보엠 예술가인 로돌포와 만남.
2막	미미 뤼제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모무스 카페	새로 사귄 보엠들과 함께 카페에서 저녁 식사. 로돌포에게 분홍색 모자를 선물 받음. 뤼제타는 늙은 귀족 알친도르와 함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등장. 카페에서 옛애인인 보엠 예술가, 마르첼로를 만남.
3막	미미 뤼제타	2월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새벽	파리 외곽의 세관문	마르첼로를 만나기 위해 방문. 로돌포와 마르첼로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게 됨. 마르첼로와 동거중.
4막	미미 뤼제타	같은 해 5월	다락방	병이 위독한 미미는 보엠 친구들을 방문. 친구들 곁에서 생을 마감함. 병이 악화된 미미를 부축해 친구들을 만나러 옴

서 일을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인의 손보다도 희었다(뫼르제, 1851/2003).” 소설에도 로돌프가 미미의 사랑에 미친 듯이 빠져버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고운 손이었다는 구절이 있다(뫼르제, 1851/2003).

미미는 또한 보헤미안인 남성들을 이해하는 여성이었다. 소설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미라는 아가씨는 씩씩하기 그지없고 내용도 떨지 않는 데다가 보헤미안들이 뽑어내는 지독한 담배연기와 문학적이고 현학적인 대화 내용에 전혀 불쾌감을 보이거나 난처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들도 점점 그녀를 자신들의 동지로 생각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반면, 미미는 더없이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얼굴은 마치 상류사회에 막 진출한 여성처럼 우아해 보였지만 이목구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교활한 면도 갖춘 듯하면서 파랑과 투명한 두 눈의 총기는 은은히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분 상태에 따라서는 야성적인 과격한 성격도 보였다. 아마 관상가가 봤더라면 그녀의 얼굴에서 극도의 이기심과 더없이 냉정한 성격의 전형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다(뫼르제, 1851/2003)”. 그러나, 뫼르제가 묘사하는 그녀의 매혹적인 얼굴과 미소는 그녀의 모든 점을 극복할 만한 것이었다.

결국 미미는 “태양처럼 눈부신 옷들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부유한 자작 폴과 함께하기 위해 가난한 예술가인 로돌프를 떠난다. 미미와 로돌프는 약 8개월간의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미미의 의도로 인해 몇 번이나 헤어질 위기를 겪는다. 이별한 후 다시 만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둘은 헤어지게 된다.

소설에서 미미는 보헤미안과 자유 분방하게 어울리며 소박한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이지만 주변의 탐욕적인 친구들에게 의해서 서서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동경하는 여성으로 표현된다. 화려한 생활을 동경해서 보헤미안이었던 로돌프를 떠나는 미미이지만 로돌포에게 미미는 언제나 예술의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이었다. 미미는 결국 자작에게 버림을 받고 불치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도움을 청하려 로돌프를 찾아오게 되지만 이미 병이 너무 깊어 로돌프가 마련해준 자선 병원의 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오페라에서 푸치니는 미미의 탐욕적인 모습을 거의 다 배제시키면서 병들고 가련한 여성인 면을 보다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은 푸치니가 미미라는 존재를 통해 예술가 지망생인 보헤미안들의 순수하고 열정에 넘쳐난 청춘을 대변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보헤미안들의 청춘 시절은 미미라는 존재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 3.2. 무제타

무제타는 원작에서 뫼르제(Musette)로 등장하며 미미의 친구이며 마르셀의 애인이다. Mariette라고 알려진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매우 인기있는 화가이면서 조각가였다고 한다(Seigel, 1987). 미미가 보헤미안의 뮤즈였다면 뫼르제는 보헤미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뫼르

트는 비록 남성에게 사랑을 팔아 금전적인 도움으로 살아가는 여성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소설에는 뫼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중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호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절대 색을 바래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이처럼 화끈하고 정열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뫼르제는 절대로 높고 돈만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되어 달라는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다(뫼르제, 1851/2003)”.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취향대로 살아가는 뫼르제는 부유한 생활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었다. 뫼르제는 “변덕이 죽 끓듯하고 자신에게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의 돈이나 화려한 신발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뫼르제의 생활은 항상 극과 극의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수직 이동 생활을 살펴보면, 고급스러운 파란색 전용마차를 타는 가 싶더니 어느새 합승마차를 타고 다니고, 지하 셋방살이를 하는가 싶더니 금세 5층짜리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실크로 된 멋진 옷을 입다가도 인도산의 조잡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다(뫼르제, 1851/2003)”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뫼르제는 소위 상류 사회와 보헤미안들의 사회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여성이었다. 뫼르제는 화려한 생활을 동경해 사교계에서 유명해지다가도 옛정을 잊지 못하고 가난한 예술가와 다시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등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보다는 금전적인 면을 중시해 부르주아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여성이기도 하다. 가난한 예술가인 마르셀과 헤어진 “이틀 후 뫼르제는 장미로 도배된 화려한 규방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2인승 마차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부름을 받고 날아온 세계의 모든 요정들이 그녀의 앞에 앉아서 자신들이 가져온 최고의 선물들을 서로 앞 다투어 주기 위해 경쟁을 하는 꿈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뫼르제는 매우 만족해했다. 이렇게 우아한 생활 속에서 다시 젊음을 되찾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뫼르제, 1851/2003)”.

뫼르제는 자신의 금전적인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여성이었다. 마르셀과 헤어져 새롭게 만나게 된 알렉시스라는 남성에게 뫼르제는 “리본 장식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다면 아직도 마르셀과 사귀고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뫼르제, 1851/2003)”. 리본 장식 때문에 마르셀 곁을 떠난 뫼르제이지만 여전히 마르셀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 4. 오페라 라보엠의 여주인공의 의상 분석

지금까지는 오페라의 대본과 원작에서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공연된 공연 속에서 미미와 무제타의 의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와 그 연출 속에서 등장인물의 특징적인 점이 잘 나타나고 있는 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 4.1. 미미(Mimi)

##### 4.1.1. 전체적인 구성

공연 자료 1의 경우 1막의 미미의 의상과 2막의 미미의 의상은 같은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며 2막은 카페로 식사를 하러 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간단한 솔을 걸치고 있다. 그리고 로돌포에게 선물 받은 핑크색의 리본 장식을 머리에 두르게 된다. 이 리본 장식 혹은 보닛은 4막에서 보엠들이 과거를 회상하던 장면에서 다시 한번 더 등장한다. 3막의 의상은 앞서 의상과 동일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려한 보닛을 착용하게 된다. 또한 보다 크기가 커진 솔을 착용하고 있다. 마지막 4막에서의 미미의 의상은 이전의 의상과는 확연하게 화려해진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다.

공연 자료 2의 의상을 살펴보면 미미는 1막에서는 실내이기 때문인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간단한 로브에 솔을 걸치고 있다. 2막에서의 미미의 의상은 1막과 같으며 극 중에 선물받은 핑크색 리본 장식을 착용하게 된다. 3막에서 미미는 짙은 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마지막 4막에서도 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3막에 없었던 보닛을 추가로 연출하고 있다. 공연 자료 2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은 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 자료 3의 미미는 1막에서 가슴부분에 레이스 장식이 달린 하늘색 로브에 스트라이프의 앞치마 그리고 그린의 니트솔을 걸치고 있다. 2막에서는 리본으로 된 보닛을 추가하게 되는데 대본에서는 핑크색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오렌지색에 가까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3막에서는 블랙 로브에 블랙의 니트솔을 머리까지 올려 쓰고 있다. 마지막 4막에서는 광택있는 아이보리의 로브에 화이트의 솔을 걸치고 등장한다.

공연 자료 4에서 미미는 1막에서 퍼프 소매가 달린 줄무늬의 로브와 솔을 착용했으며 2막에서는 핑크색 리본 장식만을 추가했으며 3막에서는 짙은 블루의 로브와 모자를 착용했으며 그 위에 다크톤의 레드솔을 걸치고 있다. 마지막 4막에서는 화이트 로브를 입고 등장한다.

공연 자료 5에서는 우선 1막에서 미미는 V자로 데코레테된 네크라인이 달린 로브에 니트 솔을 걸치고 있으며 2막에서 핑크색의 리본 장식을 추가로 착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 중에서는 가장 보닛에 가까운 머리 장식이다. 3막에서는 블랙 드레스에 블랙 솔을 걸치고 마지막 4막에서는 블루 색상의 로브에 솔을 걸치고 화이트 보닛을 쓰고 등장한다.

##### 4.1.2. 디자인

**로브** : 공연 자료를 살펴 보면 5개의 공연자료 중 4개의 연출이 미미의 의상으로 3 종류의 각기 다른 로브를 구성하고 있다. 즉, 1막과 2막의 공연에서 같은 의상을 사용하고 3막, 4막에 다른 로브를 연출하고 있다. 1막과 2막은 같은 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경우 간단하게 쇼울이나 망토 등을 걸치는 변화를 더해주고 있다. 3막의 경우는 5개의 공연 자료 중 3개의 의상이 블랙으로 연출되어 있으며, 공연 자료 1은

짙은 밤색, 공연 자료 5는 짙은 블루로 연출되어 전체적으로 짙은 색상의 로브가 구성되었다. 4막의 경우는 3막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봄이기 때문에 의상은 전체적으로 가벼운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2의 의상만 1막과 같은 의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4개의 공연에서는 각기 1막에서의 의상보다 화려한 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리제트라는 신분은 단순히 봉제 산업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유 연애를 즐기고 때로는 사교계에 진출해 창부가 되기도 하고 부르주아의 정부가 되기도 하는 등 신분을 이동하는 여성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4막의 경우는 1막, 2막 그리고 3막의 의상과는 달리 보다 화려하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

**모자** : 1막에서는 실내라는 설정이므로 모자를 쓰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막에서 카페 모무스 앞 광장으로 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외출복 복장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연 자료 1은 간단한 망토를 걸치고 나머지는 1막에서와 같은 니트 솔을 걸치는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2막에서 중요한 상징적 아이템인 분홍색 보닛이 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닛 등의 번거로운 아이템이 생략되었을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외출하는 설정이므로 외투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라는 설정으로 모자를 쓰지 않는 1막의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당시에 여성이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라보엠의 원작 소설에도 맨머리로 카페를 찾아오는 그리제트, 페미에게 카페 주인이 모자를 쓰고 오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게 하겠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있다.

또한 극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인 보닛의 경우 대본에서 명확하게 핑크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지켜줄 필요가 있다. 자료 2와 3의 경우는 오렌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모자에 관한 연출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아이템이지만 극의 연출상 2막에서 보닛을 선물받는다는 설정을 위해 생략되었을 것이므로 그것이 극의 효과상 더 바람직할 것일 것이다. 그러나 3막의 경우는 명확히 외출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자료 1, 자료 2, 자료 5의 경우와 같이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료 2와 같이 솔을 머리에 두르는 연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막의 경우, 실제 공연자료에서 살펴보면 자료 1에서는 화려한 모자를 연출하고 있으며 자료 2에서는 간단한 화이트 리본 장식을 하고 있으며 자료 3, 5에서는 모자를 생략하고 있으며 자료 4에서는 화이트 색상의 보닛을 연출하고 있다.

스토리 구성으로 본다면 모자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실내에 들어온다는 설정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극의 흐름상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모자의 착용 유무보다는 이전의 막과는 달리 화려한 모자를 연출하는 것이 좋음을 지적하고 싶다. 화려한 의상으로 연출해 미미가 가난했지만 예술적 열정으로 넘쳤던 보엠과 같이 남은 청춘을 화려하게 즐겼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able 2. 미미의 의상 분석

	자료 1 Puccini(1967)	자료 2 Puccini(1982)	자료 3 Puccini(1989)	자료 4 Puccini(2003)	자료 5 Puccini(2008)
사진					
1막 로브	심플한 V 넥라인 웹그레이/적자무늬	가슴에 레이스 장식 그레이	가슴에 레이스 장식 하늘색(도트 무늬)	V 넥라인과 주변의 레 이스 장식/ 그레이블루줄 무늬	블루 그레이(잘은 자연 물문양) 퍼프 소매
모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회색 니트 숄 헝커치프 밤색 앞치마(테두리 프릴 장식)	니트 숄	앞치마(화이트 블루 스트 라이프) 니트숄(그린)	그레이 니트 숄	니트 숄(프린팅) 줄무늬 앞치마
2막 사진					
2막 로브	1막과 같음	1막과 같음	1막과 같음	1막과 같음	1막과 같음
모자	핑크 리본장식	오렌지 리본장식	오렌지 리본장식	핑크 리본장식	핑크 리본 장식
기타	니트직의 망토 앞치마	니트 숄	그레이 니트 숄(그린)	니트 숄	니트 숄(프린팅)
3막 사진					
3막 로브	그레이 심플한 로브	블랙	블랙	블랙	짙은 블루
모자	블랙 심플 보닛	블랙	없음(숄을 머리에 두름)	없음	간단한 블랙
기타	블랙의 니트숄 하얀 손수건	검정 니트 숄 장갑(검정)	니트 숄(블랙)	블랙 모직 숄/검정 장갑 하얀 손수건	다크톤의 레드 숄
4막 사진					
4막 로브	라이트 블루 귀여운 화이트 라운드 칼라	1막과 같음	아이보리	패일톤의 퍼플 브이 넥 귀여운 리본 장식	화이트 등근 데코레테 넥라인 주변에 파스텔 톤의 꽃 장식/단 레이스
모자	화이트(긴 라이트 블루의 리본 장식)	리본장식(화이트)	없음	화이트 블루 리본	없음
기타	아이보리 숄	없음	화이트 숄	블루계열의 스카프 연지색 스트라이프	없음

4.1.3. 개선점

라보엠의 무대 의상 연출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당시 프랑스 사회 속에서 의 그리제트상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히 신분 이 낮았던 가난한 두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 아닌 것이다. 미미와 무제타 모두는 그리제트이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로레 트들이다. 또한 미미와 무제타는 보엠과 그 성격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다. 자유분방한 성격에 자유 연애를 즐기는 보엠들과 같이 부르주아의 규범을 조롱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부르주아를 흉내내고 하고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 들이다.

미미와 무제타를 완전히 상반된 성격의 인물로 판단하고 대 조적인 인물로 연출하는 것은 극에서 그리제트의 성격을 제대 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미미는 원작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

이 신분을 자유롭게 이동했던 여성이며 실제로 노동을 한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의 흰손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1막과 2막의 의상을 수수하게 연출하고 있는데 이 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심플하지만 세련된 의상으로 연출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 1, 2막에서 미미의 의상을 수수하게 연출한다면 적어도 4막에서는 화려한 의상으로 연출해 미미가 가난했지만 예술적 열정으로 넘쳤던 보엠틀과 같이 남은 청춘을 화려하게 즐겼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의상 자료가 당시의 모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미미의 경우는 수수한 의상 연출인 경우는 당시의 그리제트의 관화를 참고로 하면 효과적인 설정이 될 것이며, 미미의 4막의 의상의 경우는 당시의 모드를 반영해 좀 더 과장된 X자형 실루엣의 화려한 의상으로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2. 무제타(Musetta)

### 4.2.1. 전체적인 구성

공연 자료 1의 2막의 의상 디자인을 살펴보면 오렌지계열의 색상을 이용하여 어께가 노출된 데코레테에 퍼장식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다. 3막에서의 무제타는 파리 외곽의 애인이 살고 있는 허름한 하숙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퍼장식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무제타는 생활의 변화가 너무나 차이가 심해 수직 이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 것처럼 여기에서는 고급스러운 무제타의 모습을 표현하기 보다는 옛 애인에게 돌아와 소박한 동거 생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소한 연출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막에서의 무제타는 병들어 죽어가는 미미와 함께 등장한다. 앞서 미미의 의상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미미와 무제타는 각자의 애인과 헤어지고 자유연애를 즐기면서 나름의 화려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3막에서의 의상보다 화려한 외출복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연 자료 2의 의상은 2막에서 사륜마차를 타고 등장할 때는 귀여운 느낌이 러플이 달린 데코레테에 스커트의 앞부분에는 큰 새틴으로 된 리본이 장식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3막에서 무제타는 다크톤의 오렌지색상에 회색무늬와 밝은 오렌지색 무늬가 상하로 구성된 로브를 입고 있다. 4막에서는 밤색 로브에 밤색 솔을 걸치고 머리에는 연지색 보닛을 쓰고 있다.

공연 자료 3에서 무제타는 2막에서 넓은 데코레테에 퍼프 슬리브가 달린 블루 컬러의 로브를 착용하고 그 위에 붉은 색의 솔을 걸치고 있는데 솔에는 퍼 장식이 테두리 장식되어 있다. 3막에서는 푸른 색상 계열의 자수가 놓인 레드 로브에 다크 그레이톤의 블루로 된 스펀서를 착용하고 있으며 위에는 레드 솔을 걸치고 있다. 4막에서는 연지색의 로브와 화이트의 레이스로 된 솔과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공연 자료 4의 2막에서 무제타는 넓게 데코레테된 레드 로브와 화이트 퍼가 달린 레드솔을 걸치고 등장한다. 3막에서는

퍼플색의 로브에 짙은 퍼플의 솔을 걸치고 있다. 4막에서는 밤색 로브에 밤색 보닛을 착용하고 있다.

공연 자료 5의 무제타는 우선 2막에서는 넓은 데코레테의 검정색 자수가 놓인 레드 로브를 입고 레드 보닛을 쓰고 블랙 퍼장식이 테두리된 레드 솔을 두르고 있다. 3막에서는 레드 로브에 레드의 터번형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4막에서는 퍼플색 로브에 퍼플 솔을 걸치고 있다.

### 4.2.2. 디자인

**로브** : 무제타의 로브는 2막에서 가장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다. 5개의 자료 중 4개의 공연에서 붉은 색의 로브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료 3만이 블루 색상의 로브를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 1, 3, 4의 경우는 퍼 장식을 트리밍한 솔을 걸치고 있다. 자료 2는 로브의 프릴 장식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자료 5의 경우는 검정색 자수가 놓인 붉은 색 로브에 넓은 데코레테를 강조하고 있으나 조금은 수수한 느낌이 든다.

3막에서 무제타는 가난한 옛 애인인 마르첼로와 파리 외곽에서 동거하는 중이다. 3막의 무제타의 의상에는 가난하지만 조금은 화려하게 생활했던 옛 흔적이 남아있는 듯 설정되어 있다. 자료 1의 경우는 수수한 밤색의 로브지만 위에 퍼 장식이 달린 외투를 걸치고 있으며 자료 2의 경우는 회색 무늬가 들어간 다크톤의 오렌지 색 로브를 착용했으며 자료 3의 경우는 블루 색상의 자수가 놓인 레드 로브에 짙은 블루의 스펀서를 착용하고 있다. 자료 4에서는 붉은 색 로브, 자료 5에서는 퍼플 컬러의 로브를 착용하고 있다.

4막에서는 5공연 중 4공연의 로브가 각기 다른 색이긴 하지만 화이트, 밤색, 연지로 밝은 계통의 색상을 연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공연 자료 5의 경우는 퍼플 컬러로 연출하고 있다. 2막의 의상만큼 화려하지는 않으나 다시 사교계로 돌아간 무제타의 의상인 만큼 세련되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

**모자** : 무제타의 2막 의상의 경우 자료 1, 4, 5의 경우는 화려한 보닛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자료 2의 경우는 간단한 리본 장식으로 헤어 스타일과 어울리게 장식하고 있으며 자료 3의 경우는 따로 보닛을 구성하지 않고 망토 형식의 쇼울에 모자 부분을 만들어 두르는 연출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머리를 덮는 연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시의 의생활 사정상 합당할 것이다.

3막의 경우는 실내에 있던 무제타가 밖으로 나오는 연출이므로 과도하게 모자를 연출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자료 4의 무제타만 화려한 자수와 리본, 깃털로 장식된 토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좀 과도한 연출로 보인다.

4막은 무제타가 병이 심해진 미미를 데리고 보헤미안의 곁을 찾는 장면이다.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설정이므로 보닛을 쓰거나 혹은 드는 연출이 필요하다. 자료 3과 자료 4에서는 보닛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실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인공들이 모자를 벗어야 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Table 3. 무제타의 의상 분석

	자료 1 Puccini(1967)	자료 2 Puccini(1982)	자료 3 Puccini(1989)	자료 4 Puccini(2003)	자료 5 Puccini(2008)
사진					
2막					
로브	레드 넓은 데코레테	레드 넓고 깊은 등근 데코레테 화이트 프릴 레드 리본 스커트 단(프릴)	블루 넓은 데코레테 퍼프 슬리브	레드(검정색 자수) 넓은라운드 데코레테 (술장식)	레드(깊은 U자형 데코레 테, 리본장식이 달린 핑크 퍼프슬리브) 스커트(핑크 프릴 2단)
모자	화려한 보닛 (술 & 망사)	레드 벨벳	없음(망토형식의 술에 달린 모자)	레드 블루 리본	핑크
기타	레드술(화이트 퍼) 포세트	레드 술(테두리 흰색 퍼) 머리 에 꽃/ 화려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긴 화이트 레이스 장갑 포세트	레드술(화이트 퍼) 장갑(레드)	레드-블루술(블랙 퍼)	레드술(화이트퍼)
사진					
3막					
로브	베이지색 상의와 짙은 밤색의 스커트로 구성된 로브	다크톤의 오렌지 상의(회색 무늬) 다크 톤의오렌지 (라이트톤의 오렌지 무늬)	레드 드레스 (블루톤의 자수)스펜서 (다크 그레이 톤의 블루)	퍼플 상의(검정색 무늬) 복숭아 색 로브에 짙은 붉 은색의 꽃문양 스커트 단 2단	
모자	없음	없음	없음	레드 토크(화려한 자수, 리본과 깃털)	없음
기타	7부 소매가 달린 밤색 퍼 쇼트 코트	밤색 문양 술	레드 술	퍼플 줄무늬 술	술달린 레드 캐시미어 술 (페이즐리)
사진					
4막					
로브	베이지 (짙은 밤색의 격자무늬) 등근 칼라	밤색	연지 레이스 장식의 피슈	퍼플 연한 퍼플색 도트무늬 등근 네크라인에 흰색 프 릴장식	어두운 오렌지 로브 브이 넥 레이스 장식 꽃무늬
모자	짙은 베이지	연지	없음	없음	밤색
기타	페이즐리 문양의 밤색 캐시미어술	밤색 자수 술	화이트 레이스 술 화이트 장갑	회색과 보라색 체크에 퍼플 술장식이달린 술	짙은 오렌지 클래식한 모티브의 모직 술

4.2.3. 개선점

무제타의 의상의 경우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2막과 3막에서 의상의 대조적인 연출이 필요하다. "뫼제트의 생활은 항상 극과 극의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원작의 내용과 같이 3막에서 마르첼로와 다시 동거를 하는 무제타의 의상은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대조적인 연출은 4막에서 무제타가 옛 애인인 마르첼로를 버리고 다시 화려했던 사교계로 돌아간 모습을 극적으로 연출하기

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3막의 의상 연출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에서는 공연 자료 1, 2, 3은 퍼 장식을 사용하는 등 화려한 생활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연출은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크 톤의 색을 이용함으로 인해 수수하게 표현되고 있어 효과적인 연출로 보인다. 반면, 자료 4, 5의 연출을 이전의 의상과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 4막의 의상과의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제타는 당대의 유행을 주도했던 신분이었을 만

큼 당대의 모드를 최대한 반영한 의상으로 연출시킬 필요가 있다. 극은 183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때는 복식사 사상 가장 어깨의 볼륨을 강조하면서 가는 허리가 동시에 강조된 의상이 특징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모드가 무제타의 2막 의상에 반영된다면 전체적으로 서민의 의상으로 수수하게 연출된 무대 의상 연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페라 라보엠의 원작과 대본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라보엠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의상 표현을 분석했다. 오페라에는 미미와 무제타라는 두 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당시 이들은 그리제트라 불리는 여성상과 관련이 있다. 미미와 무제타라는 인물상을 파악하기 위해 뒤르제의 원작 소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제트가 등장하는 문학이나 판화작품에서 그리제트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그리제트가 단순히 복식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를 의미하지 않으며 자유분방하며 결혼에는 집착하지 않는 여성상, 즉 라보엠의 남자 주인공들인 보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물상인 것을 파악하였다.

오페라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그리제트라 불리는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련하고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과, 부르주아와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여성이라는 두 명의 상반된 캐릭터로 그려진다. 원작과 대본을 통한 해석을 통해 미미라는 인물상이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 보헤미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던 여성이었던 점을 고찰하였다. 때문에 의상 연출에 있어서도 노동하는 여성의 의상을 대변하던 회색조의 로브 일색이기 보다는 적어도 4막에서는 가난했지만 자유분방했으면 때로는 화려했던 생활을 했던 여성임을 나타내는 의상 연출이 필요하다. 무제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남성에게 섹슈얼리티를 제공함으로써 화려한 생활을 하는 여성이 아니라 보엠이었던 애인과의 생활 속에서는 소박한 생활을 할 줄 아는 여성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상 연출에 있어서도 단순히 화려한 의상 일색으로 연출하기 보다는 적어도 3막에서는 전체적인 의상과는 대조적으로 수수하면서 심플한 의상을 연출함으로써 인해 보다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의 의상 연출은 당시의 의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출하기 보다는 주인공의 성격을 원작과 대본, 나아가 당시의 문학이나 예술 전반에서의 인식 등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후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오페라 라보엠의 무대 의상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1830, 40년대 문학과 미술에 나타난 프랑스의 여성상, 뒤르제의 문학 작품 분석 등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라보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주요한 선행 연구가 될 것이며 무대 의상 연출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2009-1-C00090]

### 참고문헌

뒤르제, 앙리. (2003). *라보엠*(이승재 옮김). 서울: 문학세계사. (원저 1851 출판), p. 93, p. 201, p. 202, p. 226.  
 정운경. (2005). *오페라 분장의 실제:라보엠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유진, 김희은. (2010). 오페라 라보엠의 무대 의상 연구-보엠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4(7), 1065-1077.  
 Chambre de Commerce à Paris. (1851). *Statistique de L'Industrie à Paris, résultant de L'Enquête Faite par la Chambre de Commerce pour les Années 1847-1848*, Paris: Guillaumin.  
 De Kock, P. (1834). "Les Grisettes," *Nouveau Tableau de Paris au 19e Siècle*. Paris: Librairie de Madame Charles-Bechet.  
 De Laredolliere, E. (1840-1842). "L'Étudiant en droit," *Les français peints par eux-mêmes*. Paris: L. Curmer, p. 24.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1er Édition, 1694, "Grisette"(http://humanities.uchicago.edu/orgs/ARTFL, 2010년 11월 30일 접속)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6e Édition, 1832-35, "Grisette"(http://humanities.uchicago.edu/orgs/ARTFL, 2010년 11월 30일 접속)  
 Janin, J. (1840-1842). "la Grisette," *Les français peints par eux-mêmes*. Paris: L. Curmer, pp. 8-9.  
 Journal des Dames et des Modes. (1824, 6). Paris: s.n., pp. 670-671.  
 Larousse, P. (1982). *Grand Dictionnaire Universel du XIXe Siècle*. Genève-Paris: Slatkine Reprints.  
 Le Journal des coiffeurs(1836-1875). Paris: s.n.  
 Monnier, H. (1827-28). *les grisettes*, Paris: H. Gaugain, p. 4, p. 6.  
 Murger, H. (1852). *Scènes de la vie de Bohème*, 4e édition, Paris: Michel Lévy frères.  
 Musset, A. (1899). *Mademoiselle Mimi Pinson: profil de grisette*. Paris: les Cent bibliophiles, pp.19-20.  
 Puccini, G (Originator), Karajan, H. (Director), & Zeffirelli, F. (Producer). (1967). *La bohème* [DVD]. Hamburg: Deutsche Grammophon GmbH.  
 Puccini, G (Originator), Levine, J. (Director), & Zeffirelli, F. (Producer). (1982). *La bohème* [DVD]. New York: Metropolitan Opera Association.  
 Puccini, G (Originator), Severini, T. (Director), & Zambello, F. (Producer). (1989). *La bohème* [DVD]. San Francisco: Rm Arts.  
 Puccini, G (Originator), Bartoletti, B. (Director), & Zeffirelli, F. (Producer). (2003). *La bohème* [DVD]. Milan: Rai Trade.  
 Puccini, G (Originator), Louisotti, N. (Director), & Zeffirelli, F. (Producer) (2008). *La bohème* [DVD]. New York: the Metropolitan Opera.  
 Seigel, J. (1987). *Bohemian Paris: Culture, Politics, and the Boundaries of Bourgeois Life, 1830-1930*. New York: Penguin Books.  
 Stamm, T. D. (1981). *Gavarni and the Critics*. Ann Arbor and Michigan: UMI Research Press.  
 Thompson, V. E. (2000). *The virtuous Market Place: Women and Men, Money and Politics in Paris, 1830-1870*.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년 12월 9일 접수/ 2011년 2월 21일 1차 수정/  
 2011년 2월 21일 게재확정)